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襖의 유형과 조형특성

옥 명 선* · 박 옥 련+ · 이 주 영**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석사과정*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The Type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eon*(襖) Represented of Costume in the Chosun Dynasty

Myung-Sun Ok* · Ok-Lyun Park+ · Joo-Young Lee**

Master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2003. 7. 14 투고)

ABSTRACT

This study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ypes added 'Seon(襖)' to the dress of Chosun Dynasty and analyzed them into formativ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eon' is divided into three types of the standard, the decoration and the application. According to three types, the types of the standard are subdivided into Jemul Seon(the shape put the right side into lining) and The different color Seon, the types of the decoration are subdivided into Stitch, Surround, Gild and Embroidery form. And the types of the application are subdivided into Piping, Fur, Braid and Metallic form.
2. It showed as The different color Seon and Jemul Seon in the case of men dress and as The different color Seon and Gild form in that of women dress.
3. Its application showed in the ceremonial dress and 'Po(袍)' types of men dress and in the ceremonial dress and as accessories of women dress.
4. It was used as complementary color tone in both men and women dress.
5. It was used as its surface in men dress and as its reverse side in women dress according to Seon of style.
6. It was used as 'Sa(紗)' in men dress and as 'Dan(緞)' in women dress according to Seon of texture.
7. Seon of an aesthetic characteristics was distinguished according to Seon of forms, that is to say, Jemul Seon stood for calm beauty, Two color Seon stood for dynamic beauty, Stitch, Surround and Piping form stood for delicate beauty, Gild and Embroidery form stood for brilliant beauty and Fur, Braid and Metallic form stood for solid beauty.

Key words: Chosun dynasty(조선시대), *Seon*(襖), types classification(유형분류),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특성)

I. 서론

襖은 깃[領], 수구(袖口), 도련[裾], 실[袷] 등 의복의 가장자리에 의복색과 동일하거나 다른 색의 천을 사용하여 덧댄 것으로서 실용과 장식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선은 실용성, 장식성과 함께 상징성도 내포하고 있다. 즉 선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부모가 살아 계시면 선을 가능한 많이 꾸미는 것을 효로 삼았고, 부모를 잃은 사람은 선을 옷색과 같이 하여 슬픔을 표현하였다.¹⁾

선은 同色の 천이나 異色の 천으로 덧댄 것이 기본이지만 조선시대의 유물을 보면 선에 장식이 가해지거나 직물이 아닌 소재를 사용하여 선의 효과를 낸 것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색천으로 또는 이색천으로 표현된 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선에 상침, 선치기, 금박, 자수 등의 장식기법이 가해진 형태와 털, 실타래, 금속판 등으로 선이 변형된 형태도 모두 선의 개념에 포함하고자 한다.

선을 볼 수 있는 最古의 자료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인물도의 복식이다. 무용총, 쌍영총, 삼실총, 각저총, 개마총, 수산리 고분 등의 벽화를 보면,²⁾ 고구려시대에는 남녀, 노소, 귀천의 구별없이 모두 의복에 선을 가했으며, 특히 귀인계급에서는 선의 색상과 문양을 다양하게 하고 본선과 부선을 사용하여 계급을 표시하거나 선을 하나의 장식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실용적인 기능과 함께 색의 조화, 변화, 정돈 등을 통해 장식성을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선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거의 사라졌거나 남자 일반 포제나 여자 회장저고리에 남아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³⁾ 그러나 유물 자료를 통해 보면 선은 남자복식의 경우 조복, 제복, 단령, 앵삼, 심의, 학창의, 도포, 전복, 배자, 답호, 사규삼 등에, 그리고 여자복식의 경우 적의, 원삼, 마고자, 배자, 치마 등에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은 주로 왕실과 상류 양반층의 의복에 사용되어 의복의 가장자리를 보강한다는 실용적인 기능과 함께 의복의 단순한 형태와 단조로운 이미지를 보완하고, 더욱이 상침, 선치기,

금박, 자수 등의 여러 가지 장식기법들로 새로운 조형적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이와같이 조선시대에는 선이 가해진 의복이 많고 선의 표현방법도 다양하였는데, 지금까지 선에 대한 연구는 유효순(1981),⁴⁾ 박경자(1983)⁵⁾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선의 형태와 색상에 관한 연구와 조효순(1991)⁶⁾의 박규수(1807~1876)가 쓴 「居家雜服攷」에 준해 선의 상징성과 용도, 치수, 사용부위 등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선이 가해진 의복에 대한 연구와 선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출토유물과 전세유물자료 중에서 선이 가해진 의복과 선의 느낌이 나도록 가장자리를 장식한 소품류 등을 선별하여 먼저 선의 유형을 구성법과 장식기법, 그리고 사용된 재료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선의 조형특성을 유형분포와 사용범위, 배색방법, 구성양식, 재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증자료는 출토복식관련 보고서⁷⁾와 박물관소장 유물도록집⁸⁾을 참고하였다.

II. 유형분류 및 고찰

조선시대 선의 유형을 크게 기본형, 장식형, 응용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본형은 선에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법에 따라 제물선과 이색선으로 분류되는데, 제물선은 의복의 가장자리를 제천을 이용하여 안으로 꺾어 넣은 유형이고, 이색선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다른 천을 덧댄 유형이다. 장식형은 선에 여러가지 장식을 가한 것으로 장식기법에 따라 상침형, 선치기형, 금박형, 자수형 등으로 분류된다. 응용형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선의 느낌이 나도록 파이핑, 동물의 털, 실타래, 금속판 등을 가한 것으로 사용된 재료에 따라 파이핑형, 獸毛형, 브레이드형, 금속제형 등으로 분류된다.

조선시대 선의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고, 이에 기초하여 선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襟의 유형 분류

1.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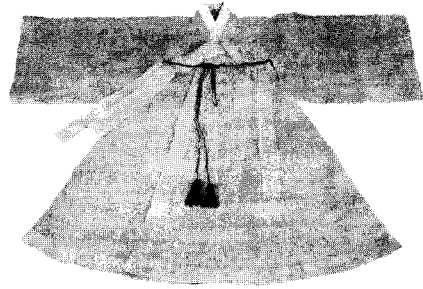
1) 제물선

의복의 가장자리에 제천을 꺾어 넣어 선의 효과를 낸 것이다.

겹옷의 경우에는 겹감과 안감의 색을 달리하여 겹감을 안으로 넣었을 때 색의 겹침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중색의 효과를 연출하였고(그림 2), 홑옷의 경우에는 겹감을 그대로 안으로 꺾어 넣어 옷감의 겹침에 의해 선의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그림 3). 제물선이 들어간 의복은 모두 간접적으로 선을 표현함으로써 은은하고 정적인 미를 연출한다.



<그림 2> 제물선(黑龍袍; 衣,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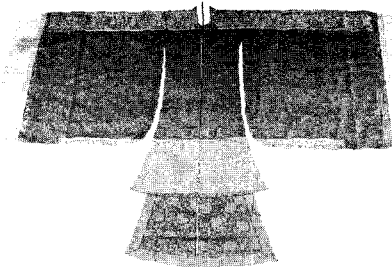


<그림 3> 제물선(도포; 衣, p. 53)

2) 이색선

의복의 가장자리에 다른 색의 천을 덧대어 선의 효과를 낸 것이다.

겹옷의 경우는 안감의 가장자리에 선을 대었고(그림 4), 홑옷의 경우 겹감의 가장자리에 선을 대었다(그림 5). 이색선이 들어간 의복은 모두 직접적으로 선을 표현함으로써 명확한 색상 대비에 의해 깔끔하고 선명하며, 동적인 미를 연출한다.



<그림 4> 이색선(원삼; 衣 p.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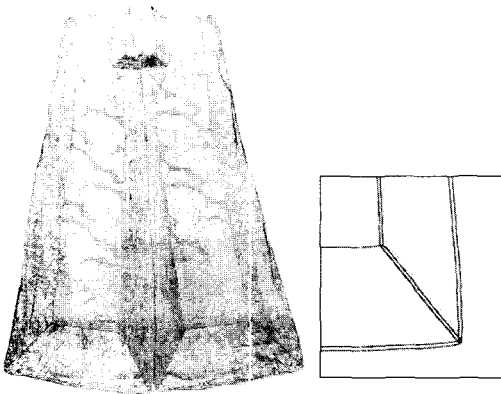


<그림 5> 이색선(사규삼; 服飾類名品圖錄, p. 43)

2. 장식형

1) 상침형

제물선 또는 이색선을 댄 다음 선의 가장자리에 한 땀 또는 세 땀으로 상침하여 장식한 것이다(그림 6). 이는 봉제구성상 보강의 목적으로 실용성을 추구할 뿐아니라 정돈되고 단정한 미를 연출한다.



<그림 6> 상침형

(전북: 전주이씨묘출토복식조사보고서, p. 26, 333)

2) 선치기형

제물선 또는 이색선을 댄 다음 선의 가장자리에 0.1~0.2cm 간격의 가는 선을 끼워넣어 장식한 것이다.

선과 의복의 색상이 같은 경우는 반대색계열의 가는 선으로 경계를 구분함으로써 선을 드러나게 하여 선명한 효과를 주는데, 주로 백색계열이 사용되었다(그림 7). 선이 복색과 다른 경우는 대비되는 제3의 가는 선을 삽입시킴으로써 선과 복색에서의 강렬한 대비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선을 보다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그림 8). 백색계열의 가는 선은 의복에 생동감을 부여하여 단조로움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되고 세련된 효과를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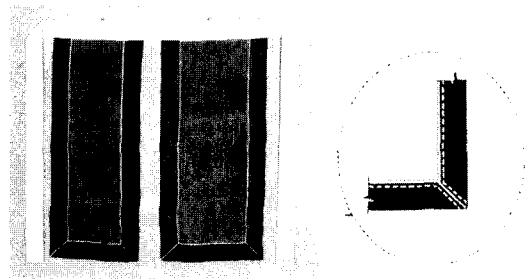
한편, 선치기를 한 다음 상침을 하여 두가지의 장식기법을 조합한 경우도 있다(그림 9). 선치기에 상침이 더해짐으로써 장식효과가 극대화되어 섬세하고 정교한 미를 연출한다.



<그림 7> 선치기형(黑納衣; 服飾類名品圖錄, p. 14)



<그림 8> 선치기형(赤納衣; 服飾類名品圖錄, p. 8)



<그림 9> 선치기형(紅裳; 服飾類名品圖錄, p. 7)

3) 금박형

제물선 또는 이색선을 댄 다음 선 위에 금박으로 장식하거나 의복 가장자리에 직금한 천을 덧댄 것이다(그림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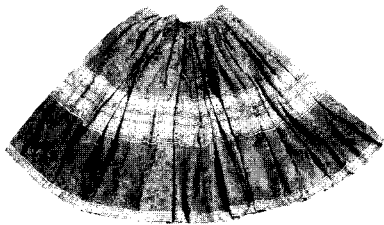
금박형은 장식기법 중 가장 화려한 것으로 금색의 화려한 광채는 고귀하고 현란한 미를 연출한다. 금박은 고귀한 신분일수록 넓은 면적에 다량으로 시문됨으로써 착용자의 위와 존귀함을 더욱 강조한다.⁹⁾

<그림 10>은 선에 금박을 바로 시문하여 선의 효

과를 낸 것이고,¹⁰⁾ <그림 11>은 직급한 스란단을 달아 선의 효과를 낸 것이다.¹¹⁾ <그림 12>는 선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의복의 가장자리 표면에 금박으로 장식하여 선의 효과를 낸 것으로 주로 장신구에 사용된 방법이다.



<그림 10> 금박형(翟衣; 衣, p. 81)



<그림 11> 금박형(대란치마; 한국의 美, p. 39)



<그림 12> 금박형(도투락 땡기; 服飾類名品圖錄, p.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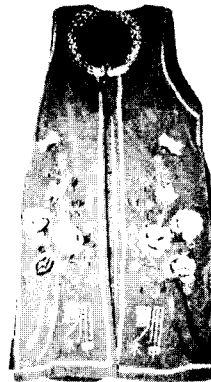
4) 자수형

제물선 또는 이색선을 댄 다음 선 위에 자수로 장식한 것이다(그림 13).

자수형은 오색 비단실로 문양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섬세하고 화려한미를 연출한다. 자수형은 조선시대의 유물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개화기 이후 무당복에서 볼 수 있다(그림 14).



<그림 13> 자수형(굴레; 服飾類名品圖錄, p. 158)



<그림 14> 자수형(자수전복; 韓國傳統服飾史研究, p.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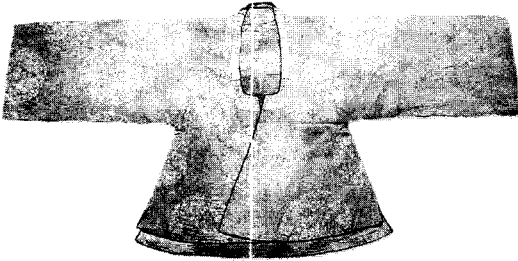
3. 응용형

1) 파이핑형

의복의 가장자리에 바이어스 테이프를 둘러 선의 효과를 낸 것으로(그림 15), 이러한 기법을 '파이핑'이라고도 한다.

짙은색의 가는 선은 의복의 외곽선을 섬세하게 처리함으로써 선율적인 형태를 부각시켜 리듬감과 곡선미를 강조한다. <그림 15>는 의복색과 대조되는

흑색 계열의 선을 사용함으로써 선명한 색상조화에 의한 정갈하고 단정한 미를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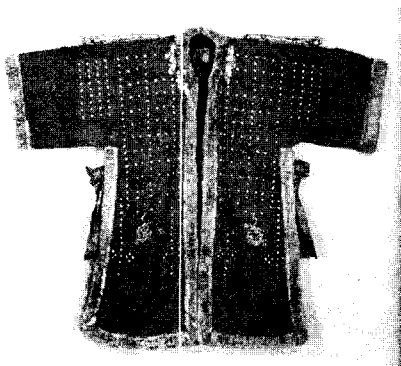
<그림 15> 파이핑형(대금형상의;
전주이씨묘출토복식조사보고서, p. 53)

2) 수모형

의복의 가장자리에 털을 둘러 선의 효과를 낸 것이다(그림 16, 17, 18, 19).

수모는 소재의 회소성과 살생을 기피하는 민족성으로 인해 의복 소재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군지휘관의 군복이나 상류층 쓰개류의 가장자리에 사용되어 보온의 목적과 함께 의복을 실제 크기보다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위엄과 기품을 느끼게 한다.

<그림 18>은 18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자로 중부 이남에서보다는 이북에서 방한용으로 많이 애용되었으며,¹²⁾ <그림 19>는 모본단, 양단 등의 비단으로 만들어 수달피로 선을 두르고 안에 양, 너구리, 토끼 등의 털¹³⁾을 대어 만든 것으로 방한과 장식을 겸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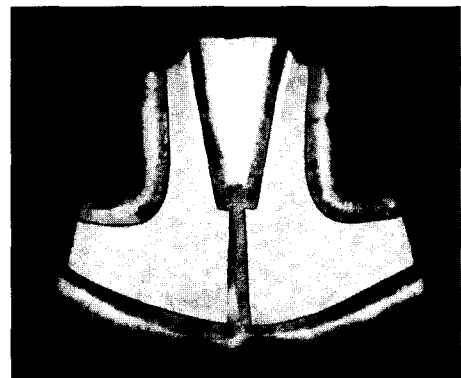
<그림 16> 수모형(갑옷; 한국복식2천년, p. 74)



<그림 17> 수모형(공차; 服飾類名品圖錄, p. 152)



<그림 18> 수모형(배자; 한국복식문화사, p. 293)



<그림 19> 수모형(배자; 韓國服飾圖鑑III, p. 134)

3) 브레이드형

의복의 가장자리에 끈 끈이나 실타래 등을 대어 선의 효과를 낸 것이다(그림 20, 21).

끈을 꼬아서 의복의 가장자리에 덧대거나 실타래를 군데군데 장귀 선으로 표현한 것 등이 있다. 브레이드형은 우리 복식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기법으로 표면 재질감과 함께 입체감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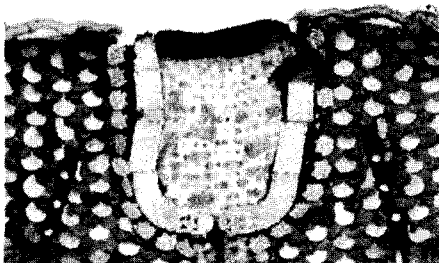
<그림 20> 브레이드형(半臂衣; 衣, p. 69)



<그림 21> 브레이드형(도투락댕기; 衣, p. 87)

4) 금속제형

의복의 가장자리에 금속제를 대어 선의 효과를 낸 것이다(그림 22).



<그림 22> 금속제형(豆錫鱗 갑옷; 服飾類名品圖錄, p. 98)

갑옷의 깃에 금속으로 낫판을 만들어 선모양으로 이어 붙인 것이 있다. 금속제의 낫판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화려한 金彩로 인해 장수의 용맹과 권위를 상징하였다고 생각된다.

III. 조형특성 분석

1. 유형분포

선이 가해진 유물자료 총 154점 중 남자복식 106점, 여자복식 48점을 중심으로 시기별 유형분포를 살펴보았다. 유형분포를 표시할 때 착용연대는 선행연구에 따라 착용자의 태어난 연도에 30년을 더하였다.¹⁵⁾ 시기구분은 편의상 복식변화의 시점이 되는 임란을 기점으로 임란 전까지를 제1기로, 임란이후부터 영·정조대 전까지를 제2기로, 그리고 영·정조대부터 국말까지를 제3기로 하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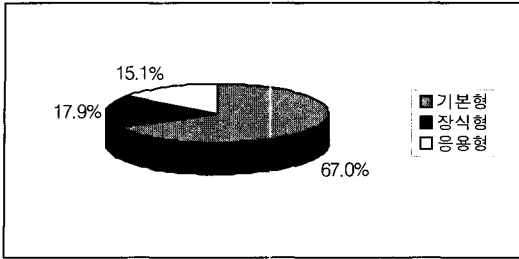
1) 남자복식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시기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시기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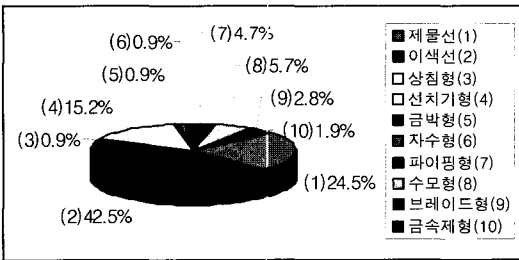
| 유형 | 시기 | 유물수(출현율: %) | | | | 유형별 수계 |
|--------|-------|-------------|--------|----------|----------|--------|
| |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유형별 수계 | |
| 기본형 | 제물선 | 1 | 3 | 22 | 26(24.5) | 71 |
| | 이색선 | 0 | 4 | 41 | 45(42.5) | |
| 장식형 | 삼귀형 | 0 | 1 | 0 | 1(0.9) | 19 |
| | 선치기형 | 0 | 0 | 16 | 16(15.2) | |
| | 금박형 | 0 | 0 | 1 | 1(0.9) | |
| | 자수형 | 0 | 0 | 1 | 1(0.9) | |
| 응용형 | 파이프형 | 0 | 0 | 5 | 5(4.7) | 16 |
| | 수모형 | 0 | 0 | 6 | 6(5.7) | |
| | 브레이드형 | 0 | 0 | 3 | 3(2.8) | |
| | 금속제형 | 0 | 0 | 2 | 2(1.9) | |
| 시기별 수계 | | 1(0.9) | 8(7.6) | 97(91.5) | 106(100) | |

<표 1>을 통해 남자복식에 나타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106점 중 기본형이 71점, 장식형이 19점, 응용형이 16점으로 기본형이 6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장식형과 응용형은 각 17.9%, 15.1% 정도로 나타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I)

<표 1>에 기초하여 각 유형별 세부 유형분포를 보면, 기본형은 총 71점 중 이색선이 45점, 제물선이 26점으로 이색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식형은 총 19점 중 선치기형이 16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상침형, 금박형, 자수형 등은 극히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응용형은 총 16점 중 수모형이 6점, 파이핑형이 5점, 브레이드형이 3점, 금속제형이 2점으로 수모형과 파이핑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II)

<그림 24>에 의하면 선의 유형별 출현 순위는 이색선>제물선>선치기형>수모형>파이핑형>브레이드형>금속제형>상침형>금박형=자수형 등이다. 즉 남자복식에 있어서 선은 주로 이색선과 제물선의 형태로 사용되거나 선치기형으로 사용되었고, 다음은 수모형과 파이핑형이 사용되었으며, 브레이드형, 금속제형, 상침형, 금박형, 자수형 등은 극히 드물게 사용되었다.

한편,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제1, 2기에 비해 제3기의 유물이 월등하게 많은데 이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의 유물들이 다량으로 소

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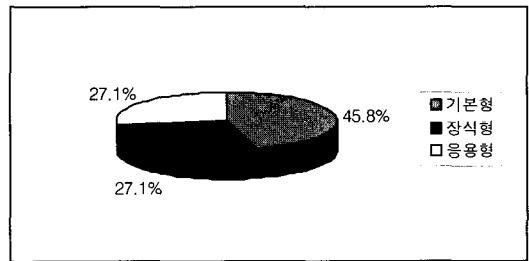
2) 여자복식

여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시기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여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시기별 출현율

| 유형 | 시기 | 유물수(출현율: %) | | | |
|--------|-------|-------------|--------|----------|----------|
| |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유형별 소계 |
| 기본형 | 제물선 | 0 | 0 | 2 | 2(4.2) |
| | 이색선 | 0 | 3 | 17 | 20(41.6) |
| 장식형 | 상침형 | 0 | 0 | 0 | 0(0.0) |
| | 선치기형 | 0 | 0 | 0 | 0(0.0) |
| | 금박형 | 2 | 0 | 9 | 11(22.9) |
| | 자수형 | 0 | 0 | 2 | 2(4.2) |
| 응용형 | 파이핑형 | 0 | 0 | 4 | 4(8.3) |
| | 수모형 | 0 | 0 | 7 | 7(14.6) |
| | 브레이드형 | 0 | 0 | 2 | 2(4.2) |
| | 금속제형 | 0 | 0 | 0 | 0(0.0) |
| 시기별 소계 | | 2(4.2) | 3(6.2) | 43(89.6) | 48(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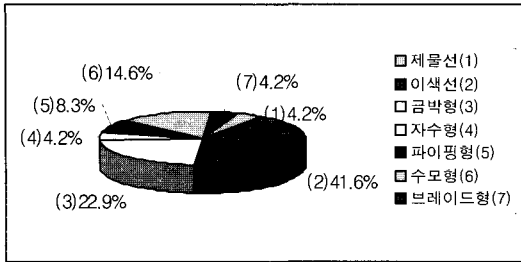
<표 2>를 통해 여자복식에 나타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48점 중 기본형이 22점, 장식형이 13점, 응용형이 13점으로 기본형이 4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장식형과 응용형은 각 27.1% 정도로 나타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여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I)

<표 2>에 기초하여 각 유형별 세부 유형분포를 보면, 기본형은 총 22점 중 이색선이 20점으로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식형은 총 13점 중 금박형이 11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침형과 선치기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응용형은 총 13점 중 수모형이 7점, 파이핑형이 4점, 브레이드형이 2점으로 수모형과 파이핑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속제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

림 26>과 같다.



<그림 26> 여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II)

<그림 26>에 의하면 선의 유형별 출현 순위는 이색선>금박형>수모형>파이핑형>자수형=제물선=브레이드형 등이다. 즉 여자복식에 있어서 선은 주로 이색선의 형태로 사용되거나 금박형으로 사용되었고, 수모형과 파이핑형이 다소 많은 가운데 자수형, 제물선, 브레이드형 등은 극히 드물게 사용되었으며, 상침형과 선치기형, 금속제형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남녀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복식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선의 유형은 이색선임을 알 수 있고, 그 외 남녀복식에는 선치기형이, 여자복식에는 금박형이 다소 많이 사용되는 가운데 다른 유형들은 극히 미미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 사용된 선의 유형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징적이다. 즉 선치기형은 남자복식에는 비중있게 사용되었으나 여자복식에는 사용된 예가 관찰되지 않고, 금박형은 여자복식에는 비중있게 사용되었으나 남자복식에는 복건에만 1점 사용되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선치기형의 속성은 절제되고 직선적이므로 남성복의 이미지와 일치하고, 금박형의 속성은 문양이 화려하고 곡선적이므로 여성복의 이미지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사용범위

선이 사용된 복식의 종류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표 3>을 통해 남자복식에 주로 사용된 선

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본형의 제물선과 이색선, 장식형의 선치기형, 응용형의 파이핑형과 수모형 등으로 출현율이 높은 복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형 중 제물선은 단령, 도포, 답호 등 주로 홀으로 된 의복에, 이색선은 중단, 갑옷, 심의, 후수, 앵삼, 학창의 등에 사용되었다. 이는 의복의 가장자리 처리라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제물선의 경우에는 비침의 효과로, 이색선의 경우에는 배색효과로 인해 장식성을 겸하고 있다. 장식형 중 선치기형은 적초의, 흑초의, 조복의 상 등 예복에 사용되어 계급을 표시하거나 배색에 의한 장식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응용형 중 파이핑형은 배자의 가장자리 장식으로, 수모형은 주로 갑옷의 가장자리에 사용되어 실용성보다는 장식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금속제형은 갑옷의 것이나 투구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수모형과 복합되어 나타난다. 즉 갑옷의 가장자리는 수모형으로 처리하고 것이나 투구의 가장자리는 금속제형으로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표 3>을 통해 여자복식에 주로 사용된 선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본형의 이색선, 장식형의 금박형과 응용형의 수모형 등으로 출현율이 높은 복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형 중 이색선은 원삼, 치마, 조바위 등에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남자복식에서와 같이 실용과 장식을 겸하고 있다. 장식형 중 금박형은 대란·스란치마, 땡기 등에 사용되어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용형 중 수모형은 배자와 쓰개류 등에 사용되어 방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선이 가해진 복식종류의 순위는 남자의 경우 중단>갑옷=단령>적초의>심의=배자>도포=흑초의=후수>답호=상>학창의=앵삼 등이며, 여자의 경우 원삼>치마>땡기>굴레>조바위=남바위=풍차 등이다.

한편, <표 3>을 통해 성별에 따른 복식의 항목별 사용된 선의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총 106점 중 포가 55점, 대금형 상의가 15점, 구군복이 11점, 소품이 25점으로 포의 비중이 높으며, 여자의 경우 총 48점 중 포가 14점, 치마가 7점, 대금형 상의가 5점, 소품이 22점으로 소품과 포의 비중이 높다. 즉 선은 남자복식에는 의례용과 평상용 포에 비중있게 사

<표 3> 선이 사용된 복식의 종류

| 유형 | 복식종류 | 남자 | | | | | | 소계 (%) | 여자 | | | | | | 소계 (%) |
|-------|-------|---|--------|--|----------------------------|-----------|--|-----------|-----------|----------|----------------------|-----------|--|-----------|---------|
| | | 포 | | | 대금형 상의 | 구군복 | 소품 | | 포 | | 치마 | | 대금형 상의 | 소품 | |
| | | 의례복 | 관복 | 평상복 | | | | | 의례복 | 평상복 | | | | | |
| 기본형 | 제물선 | | 단령 (9) | 도포 (5) 중치막 (1) 대장의 (1) 장삼 (1) | 담호 (3) 배자 (1) 전복 (1) | 동다리 (2) | 가사 (1) 복건 (1) | 26 (24.5) | 원삼 (1) | 장의 (1) | | | | | 2 (4.2) |
| | 이색선 | 중단 (10) 앵삼 (3) 구장복 (2) 사규삼 (1) | | 심의 (6) 학창의 (3) | 배자 (1) 전복 (1) 담호 (1) | 갑옷 (6) | 후수 (5) 심의대 (2) 대대 (1) 상 (1) 복건 (1) 토시 (1) | 45 (42.5) | 원삼 (10) | | 치마 (4) | | 조바위 (3) 남바위 (1) 풍차 (1) 모자 (1) | 20 (41.6) | |
| 장식형 | 상침형 | | | | 전복 (1) | | | 1 (0.9) | | | | | | | 0 |
| | 선치기형 | 적초의 (8) 흑초의 (5) | | | | | 상 (3) | 16 (15.1) | | | | | | | 0 |
| | 금박형 | | | | | | 복건 (1) | 1 (0.9) | 적의 (2) | | 대란치마 (2) 스란치마 (1) | | 댕기 (4) 쿨레 (2) | 11 (22.9) | |
| | 자수형 | | | | | | 호건 (1) | 1 (0.9) | | | | | 쿨레 (2) | 2 (4.2) | |
| 응용형 | 파이핑형 | | | | 배자 (4) 마고자 (1) | | | 5 (4.7) | | | | | 마고자 (2) 배자 (2) | 4 (8.3) | |
| | 수모형 | | | | | 갑옷 (3) | 남바위 (2) 토시 (1) | 6 (5.7) | | | | 배자 (1) | 남바위 (2) 풍차 (2) 아얌 (2) | 7 (14.6) | |
| | 브레이드형 | | | | 반비의 (1) | | 상모 (1) 패랭이 (1) | 3 (2.9) | | | | | 댕기 (2) | 2 (4.2) | |
| | 금속제형 | | | | | | 투구 (2) | 2 (1.9) | | | | | | 0 | |
| 소계(%) | | 55 (51.9) | | | 15 (14.1) | 11 (10.4) | 25 (23.6) | 106 (100) | 14 (29.2) | 7 (14.6) | 5 (10.4) | 22 (45.8) | 48 (100) | | |

용되었고, 여자복식에는 의례용 포와 쓰개류와 같은 소품에 비중있게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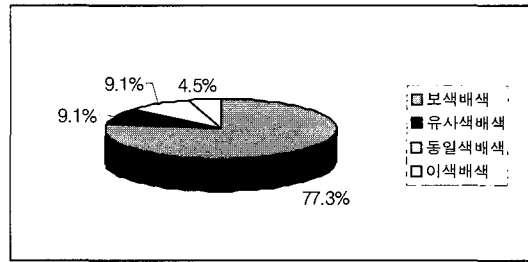
따라서 선은 남자복식의 경우 주로 신분을 표시하거나 의복가장자리를 처리하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사용되었고, 여자복식의 경우 의복을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배색방법

배색방법은 편의상 보색배색, 유사색배색, 동일색 배색, 이색배색 등으로 구분한다.17)

바탕천과 선의 배색방법을 알 수 있는 남녀 의복 자료 총 96점을 선별하여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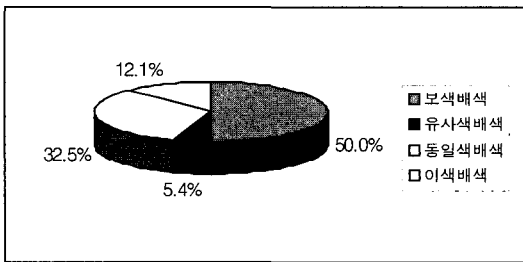


<그림 28> 선의 배색방법별 출현율(여자)

<표 4>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

| 배색방법 | 유물수(출현율: %) | | 배 색 [바탕천의 색상+선의 색상(수량)] |
|-------|-------------|----------|--|
| | 남자 | 여자 | |
| 보색배색 | 37(50.0) | 17(77.3) | 백+흑(19),적+흑(10),홍+남(9),황+흑(4),백+청(3),황+남(2),녹+자주(1), 자주+남(1),주황+청(1),홍+곤(1),홍+백(1),황+백(1),홍+옥(1) |
| 유사색배색 | 4(5.4) | 2(9.1) | 홍+소틸색(3),홍+자(1),감+흑(1),녹+청(1) |
| 동일색배색 | 24(32.5) | 2(9.1) | 흑색(11),백·소색(5),청색(3),현색(2),황색(2),남색(1),녹색(1),옥색(1) |
| 이색배색 | 9(12.1) | 1(4.5) | 청+흑(6),연두+흑(2),녹+흑(1),옥색+흑(1) |
| 소계 | 74(100) | 22(100) | 96 |

먼저 <표 4>을 통해 남자복식에 나타난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74점 중 보색배색이 37점, 동일색배색이 24점, 이색배색이 9점, 유사색배색이 4점의 순으로 보색배색과 동일색배색의 비중이 각각 50.0%, 32.5%로 높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선의 배색방법별 출현율(남자)

다음으로 <표 4>을 통해 여자복식에 나타난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2점 중 보색배색이 17점, 유사색배색이 2점, 동일색배색이 2점, 이색배색이 1점의 순으로 보색배색의 비중이 77.3%로 현저하게 높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8>과 같다.

이상에서 남녀복식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배색방법은 보색배색임을 알 수 있고, 그 외 남자복식에는 동일색배색이 다소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보색배색이 바탕천에서 선의 색상을 강하게 부각시켜 원색의 조화에 의한 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배색방법에 따른 색상조화를 보면, 보색배색은 백색+흑색, 적색+흑색, 홍색+남색, 황색+흑색, 백색+청색, 황색+남색 등의 배색으로 되어 있어 주로 연한 바탕색과 대조를 보이는 흑색과 남색이 사용되어 강한 느낌을 준다. 유사색배색은 홍색+소틸색, 홍색+자색, 감색+흑색, 녹색+청색 등의 배색으로 주로 바탕색과 서로 융화되어 차분하고 통일된 느낌을 준다. 동일색배색은 주로 제물선에만 사용되는데 체천으로 깎여 넣은 질은 가장자리의 그라데이션에 의한 농담의 조화로 다소 단조로우나 안정된 느낌을 준다. 이색배색은 청색+흑색, 연두색+흑색, 녹색+흑색, 옥색+흑색 등의 배색으로 원색을 배제하고 간색을 사용함으로써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4. 구성양식

구성양식은 선이 표현된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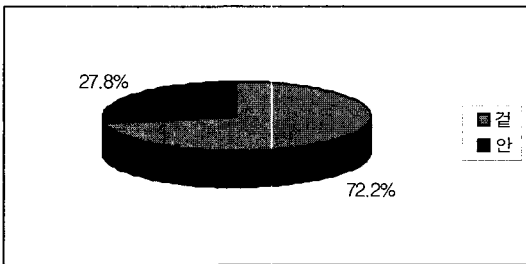
있으며 편의상 겹과 안으로 구분한다. 선이 겹에 표현된 경우 겹감의 가장자리에 다른색 천으로 선을 대었고, 선이 안에 표현된 경우 겹감을 안으로 깎아 넣거나 안감의 가장자리에 다른색 천으로 선을 댄 것이다.

구성양식을 알 수 있는 남녀 의복자료 총 116점을 선별하여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구성양식의 유형별 출현율

| 구성양식 | 성별 | 유물수(출현율: %) | |
|------|----|-------------|----------|
| | | 남자 | 여자 |
| 겹 | | 65(72.2) | 10(38.5) |
| 안 | | 25(27.8) | 16(61.5) |
| 소계 | | 90(100) | 26(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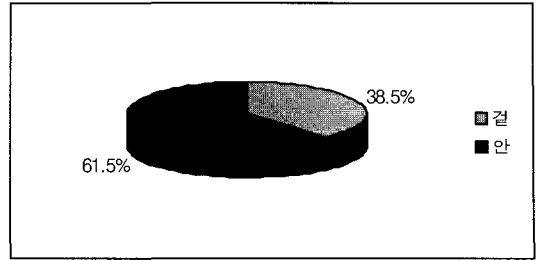
먼저 <표 5>을 통해 남자복식에 나타난 구성양식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90점 중 겹이 65점, 안이 25점으로 겹의 비중이 72.2%로 높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선의 구성양식별 출현율(남자)

다음으로 <표 5>을 통해 여자복식에 나타난 구성양식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6점 중 안이 16점, 겹이 10점으로 안의 비중이 61.5%로 높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0>과 같다.

이상에서 선의 구성양식은 남자복식에는 겹이 주로 사용되고 여자복식에는 안이 주로 사용되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자복식의 경우 규모가 크고 표면장식이 없어 다소 밋밋한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 선을 가해 장식효과를 냄으로써 단조로운 이미지를 보완하고 있고, 여자복식의 경우 선은 주로 원삼이나 치마에 사용되었는데 겹감은 금



<그림 30> 선의 구성양식별 출현율(여자)

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반해 안감은 단색으로 단조로우므로 여기에 선을 가함으로써 안·겹감에 장식의 무게감을 동일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5. 재질

재질은 편의상 견직물, 면직물, 마직물, 기타직물 등으로 구분한다.

바탕천과 선의 재질을 알 수 있는 남녀 의복자료 총 109점을 선별하여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먼저 <표 6>을 통해 남자복식에 나타난 재질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84점 중 견직물이 75점, 마직물이 3점, 면직물이 2점, 기타직물이 4점으로 견직물의 비중이 89.2%로 현저하게 높으며, 견직물 중 사와 단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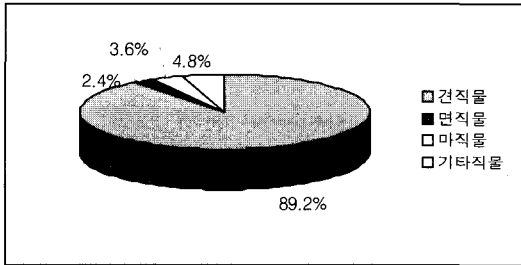
다음으로 <표 6>을 통해 여자복식에 나타난 재질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5점 중 견직물이 24점, 기타직물이 1점으로 견직물의 비중이 96.0%로 현저하게 높으며, 견직물 중 단과 사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재질은 남자복식에는 사가 주로 사용되고 여자복식에는 단이 주로 사용되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이 가해진 남자복식은 홀웃이 많고 여자복식은 겹웃이 많은데, 사는 홀웃에 단은 겹웃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남녀복식에 모두 견직물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선이 주로 궁중이나 양반층 등 상류계급의 의복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 재질의 유형별 출현율

| 재질 | 성별 | 유물수(출현율: %) | | 재질 종류 | |
|------|--------|-------------|----------|---|--------------|
| | | 남자 | 여자 | | |
| 견직물 | 단(緞) | 27(32.1) | 12(48.0) | 비단, 공단, 운문단, 보문단 속고사, 감사, 순인, 생고사, 생사, 용보문사, 운문사 생초, 珪초 명주 三足尢羅 생수 | |
| | 사(紗) | 31(36.9) | 7(28.0) | | |
| | 초(紬) | 5(5.9) | 2(8.0) | | |
| | 명주(明紬) | 6(7.2) | 1(4.0) | | |
| | 항라(尙羅) | 5(5.9) | 2(8.0) | | |
| | 생수(生繻) | 1(1.2) | 0(0.0) | | |
| 면직물 | 무명[綿布] | 2(2.4) | 0(0.0) | 0(0.0) | 무명 |
| 마직물 | 모시[紵布] | 3(3.6) | 0(0.0) | 0(0.0) | 모시 |
| 기타직물 | 수모(獸毛) | 2(2.4) | 1(4.0) | 1(4.0) | 수달피, 모피, 노루피 |
| | 끈 | 1(1.2) | 0(0.0) | | 굵은 노끈, 자수실 |
| | 금속판 | 1(1.2) | 0(0.0) | | 놋판 |
| 소계 | | 84(100) | 25(100) | | 109(100) |



<그림 31> 선의 재질별 출현율(남자)

IV. 결 론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선의 유형을 분류하고 조형특성을 유형분포와 사용범위, 배색방법, 구성양식, 재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선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선은 기본형, 장식형, 응용형으로 분류된다. 기본형은 구성법에 따라 제물선과 이색선으로 분류되는데, 제물선은 의복의 가장자리를 제천으로 꺾어 넣은 유형이고, 이색선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다른 천을 덧댄 유형이다. 장식형은 장식기법에 따라 삼침형, 선치기형, 금박형, 자수형 등으로 분류된다. 응용형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파이평형, 獸毛형, 브레이드형, 금속제형 등으로 분류된다.

2. 선의 유형별 출현순위를 보면, 남자복식의 경우 이색선과 제물선의 형태로 사용되거나 선치기형

이, 여자복식의 경우 이색선과 금박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선치기형의 속성은 절제되고 직선적이므로 남성복의 이미지와 일치하고, 금박형의 속성은 문양이 화려하고 곡선적이므로 여성복의 이미지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선의 사용범위를 보면, 남자복식의 경우 의례용과 평상용 袍에, 여자복식의 경우 의례용 袍와 쓰개류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즉 선은 남자복식에는 신분을 표시하거나 의복가장자리를 처리하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사용되었고, 여자복식에는 의복을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4. 선의 배색방법을 보면, 남녀복식에 모두 보색배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 남자복식에는 동일색배색이 다소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보색배색이 바탕천에서 선의 색상을 강하게 부각시켜 원색의 조화에 의한 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선의 구성양식을 보면, 남자복식은 겉에, 여자복식은 안에 주로 사용되었다. 남자복식의 경우 규모가 크고 표면장식이 없어 다소 밋밋한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 선을 가해 장식효과를 냄으로써 단조로운 이미지를 보완하고 있고, 여자복식의 경우 선은 주로 원삼이나 치마에 사용되었는데 겉감은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반해 안감은 단색으로 단조로우므로 여기에 선을 가함으로써 안·겉감에 장식의 무게감을 동일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6. 선의 재질을 보면, 남자복식에는 紗, 여자복

식은 緞이 주로 사용되었다. 선이 가해진 남자복식은 홑옷이 많고 여자복식은 겹옷이 많은데, 사는 홑옷에 단은 겹옷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7. 선이 가해진 의복의 미적 특성을 보면, 제물선이 들어간 의복은 정적인 미를, 이색선이 들어간 의복은 동적인 미를 연출한다. 상침형, 선치기형, 파이핑형의 선이 들어간 의복은 단정하고 정교한 미를, 금박형과 자수형의 선이 들어간 의복은 고귀하고 화려한 미를, 그리고 수모형, 브레이드형, 금속제형의 선이 들어간 의복은 표면 재질감에 의해 입체적인 미를 연출한다.

본 연구는 실물자료의 부족으로 제1, 2기의 선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지 못하여 선의 시기별 특성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성을 가진다. 그리고 저고리의 깃과 끝동에 표현된 선은 '회장'으로 변형·발전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참고문헌

- 1) 朴京子 (1983). 韓國服飾論攷 - 우리나라 옷의 襟과 회장에 관한 小考. 서울: 신구문화, p. 37.
- 2) 金元龍 (1974). 韓國美術全集 4 - 壁. 서울: 동화출판공사. 朝鮮畫報社出版部편 (1986). 北韓考古學術叢書⑧ - 高句麗古墳壁畫. 日本 東京: 朝鮮畫報社. 조선일보사편 (1994).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서울: 朝鮮日報社. 서울대학교출판부편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 I · II - 고구려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3) 이은창 (2000). 한국 복식의 역사(고대편).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 pp. 102-112. 백영자 (1993).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pp. 25-27. 李如星 (1998). 조선복식고. 서울: 범우사, pp. 98-102. 김영숙, 김명숙 (1998). 한국 복식사. 청주: 청주대학교 출판사, p. 199. 柳喜卿 (1996).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株)敎文社, p. 29.
- 4) 유효순 (1981). 古代服飾에 나타난 襟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 5) 朴京子 (1983). 앞의 논문. pp. 37-48.
- 6) 조효순 (1991). 「居家雜服攷」에 나타난 服色의 의미와 상징성. 복식, 17, pp. 83-91.
- 7) 경기도박물관편 (2001). 전주이씨묘출토복식조사보고서. 전주: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2002). 광주 고읍 의원군 일가 출토복식 - 조선의 옷매무새. 서울: 민속원.

한국출토복식연구회편 (2002). 韓國의 壽衣文化. 한국출토복식연구회 학술총서, 서울: 신유.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編. 韓國服飾, 제8호(1990), 12호(1994), 14호(1996), 17호(1999), 19호(2001), 20호(2002). 서울: 檀大출판부. 忠北大學校博物館編 (1999). 調查報告 第61冊 朝鮮時代服飾研究. 청주: 忠北大學校博物館.

- 8) 石宙善 (1996). 衣 - 民俗學資料 第三輯. 서울: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高麗大學校博物館 (1990). 服飾類名品圖錄. 서울: 高麗大學校博物館. 국립민속박물관편 (1995). 한국복식 2천년. 서울: 도서출판 신유. 國立中央博物館편 (1988). 韓國의 美 - 衣裳·裝身具·襟. 서울: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放送事業團 (1986). 韓國服飾圖錄II·III. 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 金英淑, 孫敬子 (1984). 朝鮮王朝 韓國服飾圖錄 - 上·下卷. 서울: 藝耕産業社. 金英淑 (1987). 朝鮮朝末期王室服飾. 서울: 民族文化文庫刊行會.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1). 朝鮮時代 宮中服飾. 서울: 高麗書籍株式會社. 高福男 (1986).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 일조각.
- 9) 金기숙 (1993).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 101.
- 10) 석주선(1996). 앞의 책, p. 162.
- 11) 조효순 (1997). 복식. 서울: 대원사, p. 67.
- 12)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p. 292-293.
- 13) 김영숙, 손경자 (1984). 朝鮮王朝 韓國服飾圖鑑. 서울: 예경사, p. 86.
- 14) 이주영 (1993). 朝鮮時代 無袖衣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6.
- 15) 이주영 (2001). 조선시대 직령(直領)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p. 102.
- 16) 권영숙, 이주영 (1995). 조선 초·중기 여자 장의(長衣)제도 - 임란전후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家政大學研究報告, 第21輯, p. 122.
- 17) 보색배색은 색상환에서 정반대에 있는 색과의 배색이고, 유사색배색은 색상환에서 근접해 있고 색상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색과의 배색이고, 동일색배색은 같은 색상으로 명도와 채도가 다른 색과의 배색이며, 이색배색은 보색·유사색배색을 제외한 경우이다.